

‘프리, 뮤직 페스티벌’ 광주 9~10일 목포 9~15일 여수 11~15일

# 천경자 화백 작품 반환 법적다툼 가나

### 화백측 “반환결정후 4달 넘게 지연 형사고발하겠다”

### 상식밖 합의서 등 미숙한 행정에 지역문화계도 비판

천경자 화백의 작품 반환을 둘러싼 고흥군과 천 화백측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흥군이 반환 결정을 내려놓고도 4개월 넘게 작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훼손된 작품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천 화백측 판단이다.

천경자 화백의 큰딸 이해선(67)씨는 8일 “고흥군이 어머니인 천 화백의 작품 반환 결정을 내려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반환을 지연시킨다면 훼손된 작품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만큼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흥군이 지난 3월 천경자 전시실을 폐쇄하면서 전시중인 천 화백 작품 66점을 반환키로 결정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상식’ 밖의 합의서 작성 등을 내세워 작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게 됐다는 게 천 화백측 주장이다.

고흥군은 작품 반환 결정 뒤 관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반환 작품들은 지난 2007년 고흥군에 기증할 당시 상태 그대로임을 인정한다 ▲돌려받은 작품 상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천경자 전시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고흥군이 천 화백에게 일부 반환하지 못한 ‘천경자-그 생애 아름다운 찬가’ 화집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천 화백측에 보냈다. 고흥군은 또 작품을 인도받은 뒤에도 현재의 ‘천경자전시실’명칭을 사용해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사실상 기증받은 고가의 작품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작품을 돌려준 뒤에도 ‘천경자 전시실’ 명칭을 사용한다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예가다.

천 화백측은 “작품을 돌려준 이후에 소송은 생각하지 않는다”, ‘천경자 명칭에 대한 홍보는 사양하겠다’ 등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낸 뒤에도 고흥군이 다시 ‘법적 대리인 증명서류’를 제작 요구해 결국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지난 2007년 천경자 전시실 설치를 위한 협약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협약을 맺었고 관련 증명 서류도 제출하는 한편, 작품도 기증했는데 또다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작품 반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고흥군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놓고 사과하는 못할 망정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훼손 책임 논란과 잠을 등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결국



‘꽃을 든 여인’

법적 다툼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07년 11월 천경자 전시실을 개관하고 천 화백이 기증한 드로잉(55점)과 판화(11점) 등 66점의 작품을

전시해오다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받은 천 화백 측과 1년 넘게 갈등을 빚다 최근 작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무대 위 마룻바닥에 앉아 클래식도 듣도 재즈도 듣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박창수씨가 서울에서 진행해온 ‘하우스 콘서트’는 관객과 연주자들의 거리를 좁혀며 화제를 모았다.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과 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은 관객들에게 풍성한 감성을 전달했다.

하우스 콘서트 10주년을 기념하는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이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하우스 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진행됐던 행사를 전국 20개 공연장으로 확장시켜, 100회에 이르는 공연을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행사다.

프로그램은 클래식, 재즈, 국악, 가요, 실험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또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관객들은 공연장 객석이 아닌 무대 위 마룻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하우스 콘서트의 공연 관람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방식이다.

광주 공연은 9일과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9일에는 소리꾼 박민희씨와 김시을·김예슬·윤현중으로 구성된 그룹 Vann이 다양한 국악 공연을 펼친다.

10일에는 요즘 한창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04년 한국인 최초로 포르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와 베토벤 특별상을 수상한 김씨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로도 활동중이다.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내내 목포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목포 행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마임리스트 유진규, 국악인 고준석씨, 피아니스트 현정씨 등이 출연한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여수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여수 공연에는 소리꾼 박민희와



김태형



유진규

피아니스트 계수정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프리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freemusicfestival.net)에서 자세한 일정과 참여 예술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공연은 ‘천원의 낭만’과 연계해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타지역 티켓 가격은 공연장별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226-2032(광주), 061-270-8484(목포), 061-690-7103(여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상반기 경매거래 1위 김환기 화백 38억... 천경자·손상기 10위권

## 광주·전남 작가들 역시 ‘블루칩’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이 국내 경매 시장에서 ‘블루칩’임을 재확인시켰다. 김환기, 천경자, 손상기 등의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감정협회가 최근 내놓은 ‘2012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작품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국내 작가는 수화(樹畵) 김환기(1913~1974) 화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화백은 낙찰작품 20점이 총 38억

1150만원에 거래돼 국내 작가 중 최고 거래액을 기록했다. 김 화백의 작품은 상반기 국내 미술품경매 총 거래액(약 374억 1300만원)의 10%에 이른다.

김 화백 이외에도 고흥 출신 천경자(4%)화백, 여수 출신 손상기(2%) 화백 등이 작품 거래액이 많았던 주요 10대 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박수근(8%), 이우환(6%), 이대원(4%), 김창열(3%), 김중학(2%), 이종섭(2%), 유영국(2%) 등의 순이었다.

2위에 오른 박수근은 모두 8점이 낙찰

돼 30억8200만원에 거래됐고 이우환은 27점이 23억4천240만원에 거래돼 3위를 차지했다.

김 화백은 낙찰가격을 기준으로도 상위 10위권에 작품 4점이 포함되는 등 경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1위는 17억원에 낙찰된 마르크 샤갈의 ‘부케’였으며 뒤를 이어 박수근의 ‘아이업은 소녀와 아이들’이 15억2000만원으로 2위에,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티 스타즈(Infinity Stars)’가 12억



김환기

손상기

원으로 3위에 올랐다.

한국사기미술감정협회 측은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박수근의 작품이 시장에서 희소 가치가 높아져 거래 빈도가 낮아진 틈을 타 김환기가 그 자리를 빠른 속도로 채워가는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청소년들 예술을 꿈꾸다 ‘희망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광주시와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2 청소년 희망프로젝트-뮤지컬&뮤지션&영상 미디어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개척 등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뮤지컬 기본 이론, 안무, 노래, 연기 등을 배우는 뮤지컬 클래스는 최영화(호남대 교수) 오세준(문예정터 대표)씨가, 음악 이론 교육과 작사 작곡 등 창작, 공연문화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된 뮤지션 클래스는 한보

리(작곡가), 배창희(남부대 교수)가 멘토로 참여한다.

또 올해 신설된 영상 미디어 클래스(기초반 20명, 심화반 20명)에는 고광연(광주시 청자미디어센터 팀장), 윤석년(광주대 교수)씨가 참여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일까지며 14일 오디션을 통해 참가자를 확정한다. 개강식은 18일 진행되며 11월까지 교육이 계속된다.

프로젝트 성과물은 뮤지컬 공연과 창작 콘서트, 영상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375-13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궁화호 무박2일 정동진/낙산사/휴휴암 기차여행**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강원도 바닷가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차상품!

**출발일** 8월 3일(금) 21:00경 광주역 출발 (무박2일)

**여행비**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정동진/낙산사/휴휴암/주문진 어시장 \*가게 방문은 전차에서도 갈수가능 합니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섬여행**

-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 2박3일 울릉도/독도 ₩365,000원~
-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55,000원~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할인 항공권 판매

**버스여행**

- 당일 에버랜드 ₩35,000원
- 당일 DMZ ₩49,000원
- 당일 수원화성/행궁 ₩40,000원
- 1박2일 수원화성/행궁/민속촌/에버랜드 or ₩160,000원
- 1박2일 강원도 설악산 ₩160,000원

**해외여행**

- 2일 대마도 크루즈 ₩269,000원~
-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 5일 태항산 위동해리(매주목) ₩650,000원~
- 4일 청도 위동해리(매주토) ₩330,000원~
-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해리(매주목) ₩450,000원~
- 5일 청도/태산/국부 위동해리(매주화) ₩460,000원~
- 4일 장가계 MU ₩1,200,000원~
-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 4일 황산 MU ₩670,000원~
- 4일 백두산 ₩740,000원~

호남 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출몰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죽이**  
광주광역시 gwangju.com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